



밥상공동체 · 연탄은행

1577-9044, 02)934-4933 mail@babsang.or.kr www.babsang.or.kr

보 도 자 료

**서울연탄은행 ‘더 낮은 곳으로, 코리아 커뮤니티’ 위원
기후 취약계층, 서초구 비닐하우스촌 전원마을 방문 · 봉사
폭염키트 직접 제작 및 나눔 (8. 27, 목 11시)**

폭염도 생존의 문제"... 서초구 전원마을 70가구에 폭염나기 키트 전달

‘더 낮은 곳으로, 코리아 커뮤니티’ 위원 및 봉사자 등 25명.

비닐하우스촌 가구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동절기 지원까지 지속

일시 2026. 8. 27(목) 오전 11시, 서초구 전원마을(남태령 넘어가기 전 마을)

당일 참석 : 서울연탄은행 ‘더 낮은 곳으로, 코리아 커뮤니티’ 위원

허기복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정애리 연탄은행 홍보대사, 강정애 전 국가보훈부 장관,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남재철 서울대 교수(전 기상청장), 유수연 멀츠에스테틱 코리아 대표이사, 유연정 ESG코리아뉴스 대표이사, 김민경 전 강남구 구의원, 손현주 한국초콜릿연구소 뮤지엄 대표(10명),

서울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더 낮은 곳으로, 코리아 커뮤니티’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 70여 가구에 ‘폭염나기 키트’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봉사에는 서울연탄은행 ‘더 낮은 곳으로, 코리아 커뮤니티’ 위원인

허기복 밥상공동체·연탄은행 대표를 비롯해 정애리 연탄은행 홍보대사, 강정애 전 국가보훈부 장관,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남재철 서울대학교 교수(전 기상청장), 유수연 멀츠에스테틱코리아 대표이사, 유연정 ESG코리아뉴스 대표이사, 김민경 전 강남구의원, 손현주 한국초콜릿연구소 뮤지엄 대표 등 10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서울연탄은행 활동가 등 15명이 힘을 보태 총 25명이 폭염나기 키트 제작과 가정방문 봉사에 나선다.

폭염에 더욱 취약한 비닐하우스촌 전원마을

최근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은 고지대 달동네와 비닐하우스촌, 쪽방촌, 독거노인 가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은 대표적인 비닐하우스촌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데다 주거·경제적 여건도 열악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에 모두 취약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서울연탄은행이 지원하는 연탄과 쌀, 의류 등 생필품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가구가 적지 않다. 여름철에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거나 낮 시간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 낮은 곳으로, 코리아 커뮤니티’ 위원과 서울연탄은행 활동가들은 직접 폭염나기 키트를 제작한 뒤 전원마을 70여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생수 · 손선풍기 · 쿨매트 등 폭염나기 물품 전달

폭염나기 키트에는 가구당 생수 500ml 20병을 비롯해 라면, 휴대용 선풍기, 쿨링 손수건, 쿨 팔토시, 선크림, 쿨매트, 전자모기향, 벌레퇴치제 등이 담긴다.

황도 통조림과 수프, 블루베리잼, 와인 비니거, 멘토스 등 간편하게 섭취하거나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과 생활용품도 함께 전달한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봉사자들이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으며, 다가오는 겨울에 필요한 연탄과 난방용품, 식료품, 주거 지원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연탄은행은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필요를 토대로 여름철 폭염 지원에서 겨울철 난방 지원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돌봄과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폭염과 혹한 모두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한 허기복 밥상공동체·연탄은행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겨울철 추위만큼이나 여름철 폭염도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어려움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나눔이 기후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염나기 키트 제작과 전달에 참여한 강정에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애리 연탄은행 홍보대사 등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뜻을 전했다.

“폭염이 계속될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더위보다 훨씬 크며, 때로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직접 찾아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숙연함을 느낍니다. 작은 나눔이

라도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코리아 커뮤니티’라는 이름처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웃과 함께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원마을 권옥녀 총무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날씨가 너무 더워 밤잠을 설치고 낮에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귀한 분들이 직접 폭염나기 물품을 만들고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해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10월 10일 서울연탄은행 재개식...전국에 연탄 1,500만 장 지원 목표

한편 서울연탄은행은 2026년 동절기를 앞두고 고지대 달동네와 비닐하우스촌,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서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6만여 에너지빈곤층 및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존의 에너지, 사랑의 연탄 1,500만 장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2026 서울연탄은행 재개식’을 개최한다.

서울연탄은행은 재개식을 시작으로 전국의 에너지 취약가구에 연탄을 지원하고 봉사자·후원자들과 함께 겨울철 난방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다음 장, 전원마을 이미지 첨부)



서초구 전월마을, 현재 70여 가구가 생활.



전월마을에서 생존의 온기, 사랑의 연탄 봉사